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4

April 2008. Vol. 16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라는 소식지로 매월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29로 전달되는 129 상담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를 통해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129를 기억하는 그 날까지!!

보건복지콜센터 직원일동



도와줘요 129

자녀의 학비가 부담스러워요

소득보장반 박지수

도와줘요
129

우리 상담반의 업무의 절반이 수급자에 대한 상담이어서 그 날도 평범한 목소리의 고객 한 분이 수급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분이 수급자 선정을 문의하신 이유를 탐색하면서 상담이 깊어지다 보니,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비부담이 커지게 되어 걱정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급자가 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주변 분에게 듣고 그 방법을 찾고자 129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상담업무 절차대로 수급자선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사항을 여쭙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상황으로 가늠해 보건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서 조금 벗어나서 안타깝게도 수급자 선정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드리고자,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였더니 38,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험료 금액을 들으니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학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많은 지자체와 타 부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비록 수급자 선정은 안되더라도 고객의 큰 걱정거리인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관할 교육청과 학교행정실로 확인을 해 보시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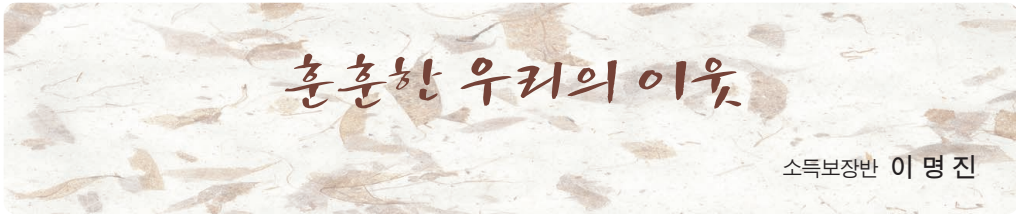
이후에 그 고객에 대한 안부가 궁금해 해피콜을 했더니 그 때 저의 안내 덕분에 학교에 알아보게 되었고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될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연과 항의를 접하곤 합니다. 그 때마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129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우리는 숨쉬는 데 꼭 필요한 공기처럼 중요한 고객의 말씀 하나하나를 듣는 것이 사명이며, 우리 상담원 또한 국민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콜센터가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방면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센터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뻗어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다시 의자를 당기고 상담에 임합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 하면서.....!





흔흔한 우리의 이웃

소득보장반 이명진

지난 달 2월쯤, 긴급의료비지원 신청에 관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웃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뇌수술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의료비가 막막하다는 전화였다.

할머니의 가족은 70세가 다 되어 가시는 할아버지와 40세 미혼의 아들, 그렇게 세 식구였는데, 아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그 이웃분께서 가끔씩, 두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 집에 잠깐 들러보신다고 하던데, 그날도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여 일주일 후 뇌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어렵고 딱한 사정을 들었고, 그 사정을 듣자마다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싶어 129로 전화를 걸었다고 말하는 사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지원 기준이 강화된다는 방침도 있지만 이 할머니께서는 뇌수술을 받을 만큼 중한 상태라 긴급함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긴급지원 의료비 신청을 해 드렸으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신청을 해 주신 이웃 주민에게 해피콜을 하였는데, 그 분께서 129에 걸려 온 전화를 접수받아 안내만 한 나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하시는지 내 일처럼 기쁘고 흐뭇했다.

요즘 이웃은 이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고, 특히 어려움 앞에서 등을 보이는 삭막한 세상인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두 어르

신의 어려움을 돌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리고 그 훌륭한 마음을 겸손으로
 덮으시고 상담과 의료지원 안내만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더
 고맙다고 하시는 그 분으로 인하여 마음이 훈훈해짐을 느낀다.

나도 그 고객에게 받은 따스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그리고 오랫동안
 전달하는 멋진 상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던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의 가족부와
 합쳐져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해오던 가족부 업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되니 보건
 복지콜센터 내의 업무도 당연히 늘어나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새로운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알아야만 했다.

처음 보건복지콜센터 업무를 시작했을 때처럼 생소하기만 한 용어들..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있었던 매장이니 화장이니 하는 장사제도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시설과 사업, 영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01 도와줘요 129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들 속에 이미 내 머리는 용량초과로 과부하상태라는 싸인을 보내온다.

단기간 내 새로운 업무 파악이 힘들어 한 콜 한 콜 할 때마다 묻고 또 물어 가야하는 이 기분은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처럼 숨가쁘고 힘겹기만 하다.

그래도 정신을 다 잡아야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내가 전하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내가 전하는 올바른 말 한마디가 국민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업무도 어느새 척척 해 나가는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동료들을 보면서 이것이야 말로 내가 이 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은가?

한동안 유행했던 "부자 되세요~" 라는 CF 대사처럼 정말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경제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풍요로운 사회, 살맛나는 정치에 살맛나는 세상,

아~하, 바로 이거야~!라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려나...

도와줘요
129

예비 요양보호사의 이야기

건강생활반 김혜영

출근할 때마다 빌딩사이로 코끝 시리게 매섭게 불던 찬바람의 겨울감기 때문에 몇 일을 고생하며 빨리 봄이 오기를 바랐다. 봄이 오면 차가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불만 가득하고 차갑기만 한 고객들의 언 마음도 살짝 녹아들기를, 또 새로운 복지정책들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점심을 먹고 나른한 봄 햇살에 광합성하며 멈춰있던 나의 마음이 좀 더 튼튼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막상 계절은 바뀌어 3월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 고3 수험생처럼 지내고 있었다.

9시 시작과 함께 울리는 벨소리에 수북히 쌓여있는 사업안내 책자와 법령 등을 펼쳐놓고, 무수히 쏟아지는 고객의 질문사항에 답을 찾아가며 안내하고, 힘겹게 상담하다가 보면 어느새 퇴근시간이 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아침이 밝아오면 출근준비를 하는 그런 반복된 일상 속에 난 아직도 겨울에 살고 있는 듯 했다.

그러던 중 요양보호사 관련 문의를 한 고객이 있었다. 현재 50대 후반으로 일을 하고 싶었으나 나이가 많아 마땅한 직장도 없고, 기껏해야 파출부 정도나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어 간병인을 해 볼까하는 생각에 알아 보던 중 우연히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늦은 나이에 자격증을 따서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많았지만 오랜 시간 끝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으로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셨다.

01 도와줘요 129

그런데 이미 요양·간병일을 하고 있는 경력자들이 매번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힘든 업무와 시설 등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항만 언급하자 고객이 이런 요양·간병업무는 처음이라 두렵기도 하고,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할지,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인지 갈등이 생긴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솔직히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여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본인이 즐거운 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세상 어떤 일에도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다. 힘들지만 내가 현재 일을 할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을 내 부모처럼 요양·간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무조건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나중에 더 후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레 고객에게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고객께서 그렇게 말해준 상담원 덕분에 걱정스런 마음이 좋아졌다고 하며,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많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고객입장에서 말을 해준 상담원에게 고맙다며 말을 하시고,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나서 나에게 고맙다고 말씀해주신 고객에게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고객에게 한 말은 현재 겨울 속에 갇혀 봄이 올까, 내가 원하는 봄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더 충고가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뒤늦게 늦은 나이이지만 자격증을 따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보람있게 일을 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고객의 말 한마디가 지쳐있는 나에게 봄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도와줘요
129

사월이 오면

김인숙 (긴급지원반 파트장)

사월의 귀는
 여린 나뭇가지에
 새싹 돋는 소리를
 듣는다.

사월의 눈은
 개나리와 산수유의
 채색을 불러 모아
 까맣게 타들어간 마음속에
 희망의 물감으로 노오랗게
 물들어 간다.

사월의 입은
 동토의 땅속에서
 부활의 생명소리를
 부른다.

사월의 손은
 하늘을 나는 종다리와 소쩍새가
 무거운 겨울 외투를 과감히 벗고
 가벼운 봄옷을 사뿐히 들고 나와
 말없이 갈아입는다.

사월의 가슴은
 아지랑이 기운으로
 따뜻한 햇볕을 불러 모아
 얼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속에
 훈풍의 난로바람을
 선사한다.

사월의 몸은
 지난 겨울을 힘겹게 살아온 어두운 마음속에
 화사한 봄꽃으로 활짝
 피어난다.

특집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자 대상, 7월부터 급여 개시

-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강보험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 급여내용은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가족요양비 지급으로 나누어진다.(※ 자세한 신청문의는 국번없이 129번)

문답으로 알아 보는 노인요양보험

Q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됩니다.
장기요양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특집

노인장기요양보험

Q2 장기요양인정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2008.4.15일부터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대리신청, 우편(팩스 포함),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Q3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구비서류는?

A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자는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노인성질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 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제출요청에 따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65세미만자가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서 등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Q4 의사소견서 발급절차는?

특집

노인장기요양보험

A 공단의 방문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받기 어려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공단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인수발부담 확 줄인다.

이상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20여년 후인 2026년경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을 지원 받는 '시설급여'와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활동이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그리고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제도가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2006년 4월부터 2007년까지 3차례의 시범사업을 13개 지역에서 준비해 왔고 2008년 7월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노인수발을 개인이나 가족이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시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특별기고
노인수발부담 확
줄인다.

첫째, 수발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시까지 계속되므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그러므로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실시 첫해에는 노인성 질병과 65세 이상 노인 중 3% 정도인 1~3요양등급 16만 명에게 도입한 후 사회 보험료를 더 확충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이해이다. 보험료부과 방식은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해 부과하는 방식인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실시 첫해인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요양보험료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발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담자의 이해와 정부의 재정발굴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시설과 인력구축이다. 요양인력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게 된다. 요양시설은 기존의 요양기관 이외에도 법정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한데 시행 초기라고 해서 대충 대충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자원조달방식과 요양보호대상범위를 놓고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처음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29 희망봉사대



-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 다녀와서 -

이번 봉사활동은 원래 공지 되었던 생활시설에서의 주방 청소가 아닌, 약 3년 전 센터 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했던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이었으며, 시설 중 한 부분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간보호센터란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낮 동안 잠시 계시다가 저녁에 다시 택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호하는 이용시설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어르신들은 다들 도착하셔서 만다라 도안에 색칠을 하고 계셨다. 얼핏 봐도 조금은 복잡하고 정교한 도안이 어르신들께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했다. 색상 선정에 있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같이 색칠을 하였다. 어릴 때 예쁜 그림에 색칠 공부하던 생각이 나서 어르신들보다 더 신이 나서 칠했던 것 같다.

만다라 2개를 빠른 속도로 색칠하여 완성할 때 즈음,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은 만다라 공부를 정리하고 의자를 둥그렇게 배열하여 어르신들을 모시게 했다. 트로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어르신들은 프린트된 가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자주 부르시던 노래였는지 잘도 부르셨다. 그렇게 서서히 흥이 오르고 바로 이어서 체조에 들어갔다. 어르신들은 빠른 속도의 트로트에 맞춰 생활지도원 선생님과 함께 앉아서 팔 다리를 움직이셨다. 젊은 우리 봉사자들이 따라 하기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속도감 있고, 동작이 큰 체조였다. 어르신들은 똑같지는 않지만 따라 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또 움직이는 것이 수월치 않으신 분들도 체조하는 다른 분들과 봉사 온 콜센터 직원들의 재롱(?)을 보시고 즐거워 하셨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 어느새 점심식사 후 드시는 약이나 혈압과 당 체크를 도와드리고 어르신과 잠시 앉아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겼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라서



어르신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은 조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약간 저러왔다. 피는 섞이지 않은 관계라도 내 친할머니 할아버지 같으셔서 잠깐 오는 봉사활동이었지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서먹하지만 이 얘기, 저 얘기 꺼내가며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나 역시 간만에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며 푸근함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실내 봉사 후 날씨가 많이 풀려 어르신들을 모시고 요양원 바로 앞의 작은 정원에 갔다. 이 때 어르신들의 숨은 끼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촬영 온 복지TV의 카메라를 보시고 구성된 가락을 몇 차례나 뽑아 내셨다. 따뜻한 햇볕 아래서 건강한 어르신들의 전통가요와 우리 가락을 듣고 따라 불렀는데 우리같은 젊은이들이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였다. 역시 봉사란, 배움이면서도 배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129
희망봉사대

2시 즈음 되어 어르신들은 2층의 요양원 입소한 분들과 함께 기체조를 하러 가신 사이, 본격적으로 주간보호센터 청소에 들어갔다. 책걸상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쓸고 닦고, 장소가 그리 넓지 않아 여러분들이 함께 애써주셔서 힘들지 않고 금새 마칠 수 있었다. 깨끗한 곳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이용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내 방 청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기체조 후 간식으로 호박죽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아이들처럼 목을 쭉 빼고 봉사자들이 나르는 호박죽을 응시하시는 어르신들이 외람되지만 너무 귀여워 보이셨다. 출출하셨는지 너무 달다고 타박도 하셨지만 한 그릇을 푹푹 해치우셨다. 더 드셨으면 했지만, 역시 어르신들 입맛에는 좀 달았는지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하셨다.

어느새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다. 의자를 신발장으로 날라 놓고 한분, 한분 정성스레 신발을 신겨 드리고 셔틀버스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내일 또 보자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신다. 하루 밖에 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차마 드리지 못하고 또 뵙자고 인사드렸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봉사활동이었는데, 몸도 많이 피곤치 않고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과 따스함에 도리어 얻어 가는 것이 더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 등의 이용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한다. 한 어르신은 한참 기다려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고 못내 아쉬워 하셨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역사회주민의 어르신에 대한 진심어린 공경과 투자가 있다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바쁜 평일에 콜센터에서 나 한사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준 동료들과 또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씩 꼬박꼬박 봉사활동을 이어가는데 보건복지부 콜센터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달의 129 희망봉사대 봉사활동

- 일시 : 2008. 3.14(금)
- 장소 : 안양노인전문요양원
- 봉사활동 내용 : 미술치료 및 시설내 청소, 야외나들이 등



129 봉사대원들이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미술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간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129
희망봉사대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보행연습을 시켜드리고 봉사대원의 재능을 보여드렸습니다.



구석 구석 복은 때도 말끔히 닦아 냈구요

“은 몸으로 고생하신
봉사대원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만 누르시면
생계 · 의료 · 복지 ·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긴급지원 등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